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 의미 유형과 결혼 만족

남 영 주*(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강사)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각본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문화적인 각본으로서의 성 이중기준, 심리내적인 각본으로서의 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 대인 간 각본으로서의 성 주체성을 세 차원으로 하여 성 의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유형화된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개인관련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교), 가족관련 변수(결혼기간, 배우자 선택 유형, 소득, 맞벌이 여부, 배우자의 교육수준, 자녀수), 성에 대한 의사소통관련변수(성에 대한 대화,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성 관계 후 상호작용)를 밝히고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인 판별력을 규명하고, 유형화된 집단이 결혼 만족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삼, 사십대 기혼 남성과 여성 6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이중기준, 성 주체성, 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라는 세 차원에 의해 분류된 성 의미 유형은 소극적 의미부여형(16.3%), 주체적 의미 결여형(29.6%), 전통적 각본 충실형(28.8%), 건강한 성 인식형(25.4%)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또한 건강한 성 인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74.7%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 의미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전통과 진보의 과도기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주로 사회 문화적인 각본 위주로 이루어져왔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동기나 의미, 대인간의 관계적 차원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측면과 각 차원의 역동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판별요인은 '성에 대한 의사소통 요인' 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 개인의 성에 대한 관점은 성에 대한 부부간의 적극적인 대화나 자기 노출, 서로의 관점을 배려해주려는 노력, 배우자에 대한 피드백 등과 같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셋째, 성 의미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을 보면 소극적 의미 부여형은 결혼 만족이 가장 낮았고, 건강한 성 인식형의 경우에 결혼 만족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이 부부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며, 부부 각자의 성에 대한 관점이나 부부로서 가지는 성 정체감과 성에 대한 의미 등은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부 생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